

사진기자의 단상



경찰이 실례 중이냐고요?

지난 6일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 운동본부 소속 회원 등이 현물남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청 앞에서의 한 컷입니다. 시위진압복을 입은 경찰들이 시위대가 동원한 현물수송 트럭을 향해 '불알'을 보고있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본능적 직업근성으로 렌즈를 돌려 셔터를 눌렀습니다. 배경이 된 트럭에는 시위대가 마련한 플래카드에 "안돼"라는 문구가 있어 절묘한 대조마저 이뤘습니다.

치하고 있는 시위현장에서 얼마나 참가가 어려웠으면 저렇까"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5분, 10분이 넘게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정확한 취재를 위해 가까이 가보니 경찰들은 방패를 맞잡은 채 시위차량을 둘러싸고 있을 뿐 이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허탈(?)했지만 역시 우리의 들쭉날쭉한 경찰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심정하

(만덕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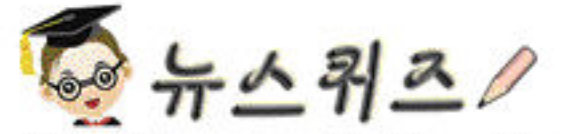
오는 2030년 3월 1일. 서른 한 살이 된 초롱 초롱했던 열 네 명과 만나기로 한 날이다. 꿈 단지 속에 묻어둔 꿈들을 현실로 안고 운동장에 당당하게 서 있을 대견스러운 얼굴들을 떠올려 보며 그 해의 추억들을 더듬어 본다. 3월의 날씨는 우리의 가슴을 움츠리게 했다. 더욱이 새 학년이 되어 만나는 교실은 왠지 차가운 냉기까지 감돌게 했다. 나는 4년째 같은 학교에서인지 그리 어색함이 없이 교실에 들어서지만 고개를 숙이고 쪽책만 보고 있는 한 남학생을 발견했다. 이를

서 기쁨의 순간을 맞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던 기억들. 교실 바닥의 커다란 맥물 자국 앞에 긴장되었던 얼굴, 힘찬 팔놀림으로 말끔히 지워놓고 서로에게 다짐하던 모습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지금은 방에 걸려 둔 작은 낙관이 있는 액자 앞에 서면 그때의 모습이 아롱지겠지? 그 뿐인가. 현장학습 날 자신의 것과 똑 같은 내용물이 든 가방을 그 남학생에게 건네주던 여학생의 손길. 갑갑해 새겨진 우정이 우리를 한 가족처럼 다가서게 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하겠다며 서로서로 다투었고 14명을 태운 커다란 꽃수레는 덩달아서 교실의 뒷면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가을의 냄새가 풍겨왔다. 비닐봉지 마다 흠 묻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며 자랑스럽게 서 있는 너. "선생님 것은 더 커요" 그 때의 너의 목소리.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첫 만남의 어색함의 표현이었으리라. 그 학생을 보면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신감 넘치는 자기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보리라 다짐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주저 없이 표현해보고 즐거움을 얻고 활기차게 행동하기를 희망했다. 14명 전원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싶어서 작은 교실을 띠 매울 '각설이 타령'을 선택했다. 현 옷에 그림을 그리고 조각 천을 붙이고, 빈 분유통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엉덩이를 싹뚱거리던 구상진 모습을. 선생님! 숨이 차다며 투덜대면서도 땀으로 얼룩진 모습을 마주보며 서로 닦아주던 다정한 순간들이 고추잠자리 날개 짓 되어 땀똥 되고 있다. 또 하나, 하루 1시간씩 붓을 잡고 먹 향기에 취해서 열심히 써 내려간 글씨. 몇 번의 대화에

리. 지금도 그런 소리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겠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은 나누어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어주는 넓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행동하자고 맹세를 했고, 최선은 모든 일을 정성껏 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가끔 마음이 내킬 때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에서 한결같이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자고 약속했던 그날. 이제서 어디에서나 누군가의 만남 앞에서라도 어색함이 없이 자신 있고 당당하며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꿈 단지를 들어 올려 꿈을 이루어달라며 환히 웃으며 만났던 날을 기다려 본다. 하고 무렵 동생과 함께 절반의 울무차를 종이컵에 들고 왔던 작은 손과 악수를 할 것을 생각하니 내 손이 오늘따라 더 작아 보인다.



46. 2007년 정해(丁亥)년을 맞아 유통가에서는 동물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재복이 넘치는 이 동물의 해로, 평생 만나기 힘들다는 속설 때문에 유통업계 등에서는 이 동물을 내세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서도 출산 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지상 중 가장 마지막 동물은 무엇일까요. ① 쥐 ② 소 ③ 호랑이 ④ 돼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내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와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우편번호 50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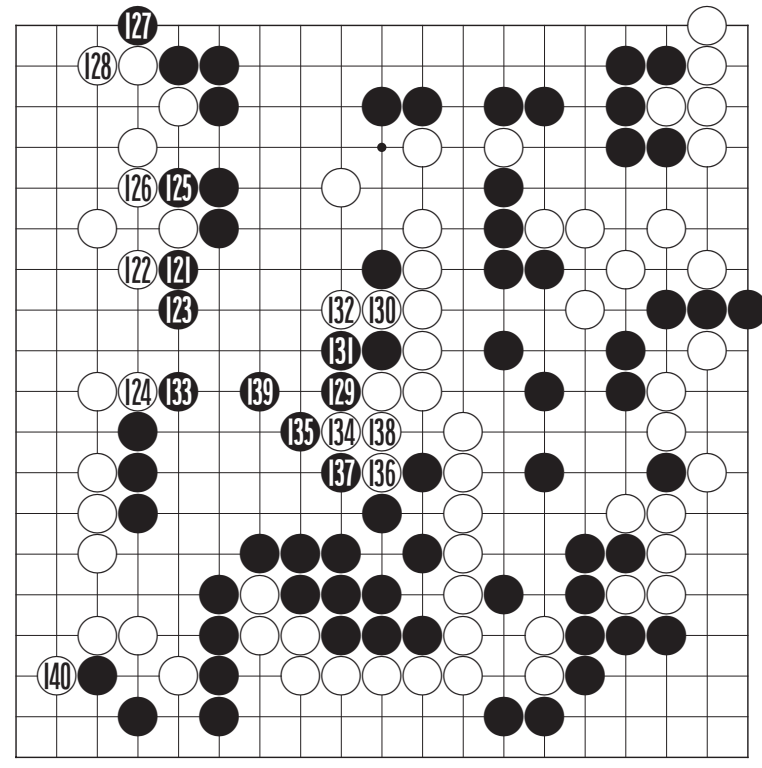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9일(음 1월 21일 癸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바둑소식

이세돌, 도요타텐소배 '명군'

이세돌 9단이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회 도요타텐소배 세계바둑왕좌전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장수 9단에게 18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장수 9단과 1승1패를 기록한 이 9단은 9일 오전 10시 최종국을 갖는다. 이날 백을 잡은 이 9단은 초반 포석에서 실리를 차지한 뒤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실리작전을 펼친 끝에 중앙에서 20여집을 벌어들여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 대화의 제한시간은 3시간, 초읽기는 60초 10회이다. 전기 우승자는 이세돌 9단.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느슨한 수 흑 121 8보(121~140)
이세돌 흑 121도 사러가 부족한 수. 이 수로는 '참고도 1'의 흑 1을 선 수하고 3-5로 막아야 했다. 이렇다면 중앙 백 대마가 아직도 미생이라 흑이 유망했다. 실전은 백 124가 선수가 되어 132까지 백 대마가 확실하게 살아서 '참고도 1'과는 큰 차이다. 흑이 127로 찢혔을 때 128로 돌려 선 것은 정수. 이 수로 '참고도 2'의 백 1로 막는 것은 흑 2로 끊는 수가 있어 8까지 크게 수가 난다. 흑이 139로 중앙을 지키기는 했으나 귀중한 선수를 잡은 김지는 5단이 140으로 찢히기면서 승부의 저울추는 백쪽으로 기울어 갔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제2회 전남남도지사배 바둑대회
여성부 결승
참고도 1, 참고도 2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I don't know about that), Japanese (この頃、なんだか機嫌がよさそうですね), Chinese (咱们请个保姆吧), and Korean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includes text, translations, and practice exercises.